

# 行政發展과 公務員의 倫理

李錫濟

(總務處長官)

## 1. 序論

오늘 본인에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李漢彬院長과 교수 여러분 그리고 학교 당국에 滅謝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理論의인 것 혹은 크게 參考가 될만한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좋건 싫건 여러분들 보다 20년정도 나이를 머금은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만큼 體驗을 더가진 사람으로서 지난 6년간 政府에 군무하면서 내나름대로 國家 및 社會의 現實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바가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近代化 혹은 福祉國家를 指向하고 잘 살 수 있는 國家를 만들겠다는 결심하에 다같이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國家나 社會가 發展하는 根本的問題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國家와 社會가 잘 되어야 하고 國家와 社會가 잘되면 내가 곧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社會集團」, 「國家」는 相關關係에 있고 三位一體關係에 있는 것입니다. 國家發展에 있어서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내가 접촉하는 人間關係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家庭이 잘되려면 父母와 兄弟間에 서로 和睦하고 서로 도울때 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家에도 그것이 適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卒業後에 國家要員으로서 일을 담당하고 다음 世代를 계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世代의 主人이 될 여러분들에게 내가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 여러분 知識人은 社會의 指導層에 속하고 知識人の 行動은 그들의 人間關係에 미치고 나아가서 社會와 國家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理論의인 것이 아니라 내 體驗에서 얻은 自己流의 哲學인 것입니다. 나이많은 사람들의 體驗을 듣고 배우는 것도 重要한 教育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너가지 중요한것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 自己投票와 努力의 代價없이는 目標를 達成할 수 없으며 좋은 人間關係를 維持할 수 없다.

사람들은 民主主義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러면 民主主義란 무엇입니까? 民主主義란 三權分立이다, 言論의 自由다, 結社의 自由라고 들 합니다만, 民主主義란目的이 아니라 手段입니다. 나라가 잘되기 위한 手段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내가 잘 되어야 하고 개개의 인간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民主主義입니다. 그런데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다. 우리가 행복스럽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내걸면서도 거기에 도달하는 또 다른 요소와 수단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자기가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自己投資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좋은 人間關係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公務員들은 自己의 能力도 모르면서 그렇다고自己投資乃至努力도 않으면서 自慢과 錯覺속에 빠져 「昇進을 안시켜 준다」고 不平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公務員들만에 限定되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社會의 人間關係는 대단히 正直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不正과 협잡이 통할현지 모르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는 그것은 통하지 않는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3천만이라 하지만 그중에 우리가 알고사는 사람은 불과 몇 백명 입니다. 그 속에서 信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행세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社會의 人間關係는 正直하다고 보며 또한 相對的이라고 봅니다. 相對的이라 함은自己投資와 努力없이는 남으로부터, 심지어 父母子息之間에도 좋은 代價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3. 「나」, 「社會」 및 「國家發展」을 위한 價值觀의 確立이 要請된다.

價值觀의 問題에 대하여는 나보다도 여러분이 理論的으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價值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읽은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社會는 社會的 共同價值觀이 그 構成員間에 形成되고 이것이 반영된 社會規範이 社會成員間에 무리없이 遵守되고, 만일 社會成員이 社會規範에 離脫했을 때에는 社會制度가 이를 統制하는 社會를 安定된 社會라 하는 반면에 價值觀이 安定되지 못해 規範의 行動에 一貫性이 없는 社會를 不安한 社會」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社會는 어떤 社會입니까? 우리는 지금 「福祉國家」, 「近代化」를 부르짖고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歷史的 必然的인 問題이지만 우리 社會에 통용되는 發展的인 價值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價值觀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全體的으로 통용되는 「rule」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李朝 500年間 「封建社會」—그것이 理論적으로 妥當한지는 論外로하고—에서 살았고 日帝 36年間 帝國主義 支配를 받았고, 解放後에는 과거의 傳統的인 바탕위에 西歐의 皮象의인 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一貫性있는 價值觀이 우리 社會에 存在하고 통용될 수 없읍니다. 우리의 生活주변에 그러한例가 많습니다. 불과 몇년동안에 價值觀의 變動은 극심하게 일어났읍니다. 어제의 美가 금방 醜가 되고 善은 惡으로 變하며 不義가 義로 變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여러분의 價值觀設定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전에 상당히 社會的地位가 높은 사람이 집을 지었다고 초청하기에 가보았더니 울타리를 높이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울타리가 높으냐고 물어봤더니 「도둑놈이 많아서……」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은 무허가로 지은집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는 남의 땅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놈을 막겠다고 울타리를 높이 쌓다니—그 가운데 지식인이 아무 모순을 느끼지 않고 사는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우리사회에는 自己責任을 자기가 수행하지 못하고 남에게 그것을 轉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동안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Hotel이나 극장 그리고 이웃간의 생활에 있어서 自己責任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에게 그것을 轉嫁하는 風潮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또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思考方式과 行動에 調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재의 우리 책임도 있지만 과거의 歷史的責任도 있습니다. 우리의 傳統的 文化가 그려했던 所致에다가 西歐의 文化가 形式的으로 들어온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環境, 새로운 現實과 理想과의 사이에서 理想을 追求하는 過程에 있어서 賢明한 國家나 賢明한 國民은 그 調和를 빨리 發見하여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때 여러분이 잘되고 社會와 나라가 잘되는 것입니다.

#### 4. 國家와 社會發展을 위해서 우리는 合目的인 思考와 行動을 指向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나라들 보다 더 빨리 發展해야 할 處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발전하면 1980年代에는 현재의 日本水準인 GNP 1000弗을 넘을 것이라고 經濟專門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라가 잘 되고 社會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能率의이고 努力이 허비되지 않고 發展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研究와 實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國家公務員들에 대하여 國家行政에 非能率의이며 浪費의이라고 하는 非難은 그들이 모든일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이 効果의이고 能率의이라는 合目的的인 目的意識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지난 해에 교통부에 책임있는 局長이 자동차번호판을 작은 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主張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그는 臨機應變으로 「外國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후 자동차번호판은 바뀌었는데 그전것보다 더잘 안보입니다. 자동차 판은 可視거리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보이도록 판을 바꾸어야 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왜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目的意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하나 예를 들면 요즘 中高等학교 入試때가 되면 入試願書에 반드시 호적초본을 부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入學期가 되면 區廳이나 面사무소의 書記들은 바빠지고 다

른 行政 업무 수행에 非能率을 줍니다. 學父兄(顧客)들은 그들대로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와같이 해서 부친 호적초본을 不合格者의 경우 누가 봐줄니까? 수많은 不合格者의 호적초본은 아무소용 없이 入學願書에 형식적으로 첨부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호적초본을 누가 왜 부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長官이나 局長이 결정한 일은 아닐것입니다. 文教部主事 한사람의 盲目的이고 形式的인 결정이 이와같이 國家行政이나 社會에 非能率을 초래합니다. 數年前에 내가 政府에 들어 갔을때 다음과 같은 서류들 받은 적이 있습니다. 「山林綠化의 件—首題之件에 대하여 自古로 우리나라是 山紫水明하고……」로 始作되어 한참 내려 읽어보니 끝에 가서 결국 「나무×그루심으라」는 것이 없읍니다. 나무 몇 그루 심으라는 文書를 이렇게 形式的인 文章으로 써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行政의 浪費이며 非能率입니다. 이러한 盲目的인 것을 合目的的인 것으로 해야할 분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 5. 結論

結論的으로 말해서 한 民族의 發展의 機會는 항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過去民族이 發展해온 것을 볼 때 新羅統一 이후에 우리에게 發展의 機機會가 주어졌고, 世宗大王때 또한 發展하였고, 李朝末 大院君時代에 大院君이 進取의인 努力으로 開化하려다가 과격한 開化가 現實逃避的으로 衝突되어서 成功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던 우리 民族이 繁昌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意慾에 벅차있습니다. 이 機會를 놓치면 우리는 당분간 發展의 機會를 잃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 우리 政府樹立後에 한 가지 큰 失政이 있었다는 것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過去 李朝時代에는 政府가 農事資金이나 肥料도 주지 않았고 오직 百姓은 四註八字란 믿고 살았던 것이며 政府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日政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解放後 우리도 獨立해서 잘 살아보자는 意慾에 차 있었습니다. 社會를 위해서 自己의 家產을 바치고 奉仕한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意慾을 당시의 爲政者들이 북돋아 주지 못하고 自拋自棄로 이끌었다는 데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過去에 너무나 뒤떨어졌기 때문에 現在와 將來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내야 합니까? 특히 指導層에 있는 國家要員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民族中興, 祖國近代化, 혹은 國家 民族이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機會를 놓쳐서는 안될 責任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國際情勢를 볼것 같으면 모든 國家가 國際協力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意味에서는 모든 國家가 自己의 實利를 추구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몬로」主義로 나가고 어떤 때는 國際主義로 나가고 하는 그 反射는 올 때가 왔다고 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韓國問題는 우리 韓國人이 解決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經濟發展과 國家發展을 남이해 주기를 期待하고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資源도 不足하지만 우리의 内面的인 合目的的價值觀과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人間關係 등을 잘 結合해서 어떻게 잘 움직여 나가고 能率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래는 달려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만 나의 말을 끝 맺겠습니다.